

뉴스홈 | 최신기사

## <월드컵축구> '인의 장막' 걷은 세트피스

송고시간 | 2009-04-01 22:07



배진남 기자

기자 페이지

&lt;월드컵축구&gt; '인의 장막' 걷은 세트피스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후반 42분까지만 해도 '인의 장막'을 뚫기에 허정무호의 창은 너무 무디기만 했다. 하지만 끝내 북한의 밀집 수비를 허문 것은 세트피스였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5차전에서 후반 42분 김치우(서울)의 찬금 같은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전, 후반 90분 동안 헛심만 뻘 뻘했지만 김치우가 허정무호를 살렸다.

행운이 깃든 김치우의 프리킥 골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북한의 수비 앞에 다시 주저앉는 듯했다.

북한의 '벌떼 수비'는 이미 지난해 모두 무승부로 끝났던 네 차례 맞대결을 통해 잘 알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뻘히 알고도 상대의 전술, 전략에 다시 말려들어 고전했다.

조 선두를 달리는 북한은 이날도 무리하지 않았다. 수비 중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다.

스리백은 물론 좌, 우 윙백까지 가세해 최종 수비진형을 구축했고,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김영준도 앞으로는 거의 나서지 않았다.

공격에서는 최전방의 정대세, 홍영조와 좌우측면의 박남철과 문인국이 스피드와 돌파력을 활용한 역습으로 종종 허정무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한국은 북한의 밀집수비를 뚫을 만큼 공격수의 개인기가 뛰어나지도 못했고 공격 때 수적인 우위를 만들지도 못했다.

정대세 홀로 섰던 예전과 달리 홍영조까지 최전방에 배치되자 한국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기가 쉽지 않았다.

쫄쫄한 수비를 뚫으려면 특히 좌, 우 윙백 이영표(도르트문트)와 오범석(사마라)이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야 하는데 북한 공격수 두 명이 두려워 선뜻 자리를 비워놓지 못했다.

중앙에서 어렵게 만든 찬스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했다.

특히 박주영(AS모나코)을 거쳐 연결된 두 차례 결정적 기회에서 이근호가 찬 공은 북한 골키퍼 리명국의 가슴에 안겨 장탄식을 쏟아내게 했다.

이런 경기에서는 빠른 패스 타이밍이 중요한데 볼 터치가 많았다.

전반 내내 부정확했던 약속된 플레이를 좀 더 가다듬거나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길 밖에 없어 보였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허정무호는 지난 1월 서귀포 동계훈련부터 틈만 나면 세트플레이를 갈고 닦았고, 이번 북한과 대결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 동안 노력은 경기 종료 직전 빛을 보았다.

hosu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4/01 22:07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확대했니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 뉴스



마스크만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 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 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45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 "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6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 조기 등판 속 할 동재개 예열?  
56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 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개인사/제휴문의